"신라 왕경을 찾아서"

(경주 시내 주요 유적지)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신라 왕경을 찾아서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대릉원	신라라는 이름의 유래	신라는 여섯 부족의 군장들이 혁거세를 추대하면서 건국되었답니다. 22대 지증왕 때에는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확정지었고, 23대 법흥왕 때에는 불교를 공인해 찬란한 불교문화의 막을 올렸습니다. 경주는 백제, 고구려를 병합하고 그 후 나라를 고려에 넘기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천년왕국 신라의 서울이라고도 말해요. 경주라고 부르게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예요. 천년 왕국을 얻은 왕건은 아주 경사스러운 고을이라는 뜻에서 처음으로 경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일까? 무덤일까?	여러분 제 앞에 산같이 큰 고분이 보이시나요? 경주 시내를 멀리서 바라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들 사이로 우뚝 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고분이예요. 그중에서도 이 곳 대릉원은 신라시대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 23기가 모여 있어 경주에서 능이 가장 많은 곳이랍니다.
	미추왕에 얽힌 전설	신라는 세 성(김, 박, 석씨)의 왕이 번갈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신라의 첫 번째 김씨왕인 미추왕릉에 얽힌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추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유례왕 때의 일입니다. 이서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신라의 수도인 금성으로 쳐들어 와 신라가 궁지에 몰렸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투구에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이서국 군대를 물리치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 버렸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후에 미추왕의 무덤 앞에 대나무 잎이 소복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돌아가신 미추왕이 도와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대나무 잎을 꽂은 군사들이 나타났다고 하여 죽현릉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무덤의 이름이 달라요	신라의 무덤은 똑같이 생긴 무덤일지라도 표현형식이 다 다르답니다. 신라의 무덤은 능, 총, 묘, 분으로 구분지어 부르는데 능 : 임금의 무덤 또는 왕비의 무덤으로 전할 때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대릉원	무덤의 이름이 달라요	총 :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규모가 큰 무덤(황남대총, 서봉총, 금관총, 금령총, 호우총, 식리총, 천마총) 묘 : 임금이 아닌 자의 무덤, 김유신묘, 김인문묘, 설청묘, 간묘 등 분 : 발굴되지 않은 옛날 무덤
	두 개의 큰 무덤	황남대총이란 이름은 경주 황남동의 커다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황남대총은 길이가 120m, 폭이 84m, 높이가 23m인 거대한 무덤으로 두 개의 능이 나란히 붙어 있어 쌍봉무덤이라 하거나, 표주박 같이 생겼다고 표형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왕의 무덤인지 왕비의 무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능은 왕과 왕비의 쌍무덤으로 추정 되는데, 발굴 결과 남쪽에는 많은 무기들이 출토되어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북쪽은 금관을 비롯하여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여자용 장신구가 많이 출토되어 왕비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60세 전후의 왕으로 생각되는 남자 뼈와 함께 순장한 것으로 짐작되는 20대 여자의 뼈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천마총에 숨겨진 비밀	천마총으로 이동하기 전 제가 천마총과 황남대총에 숨겨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1973년 경주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황남대총을 발굴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기술로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먼저 작은 무덤을 발굴하기로 했어요. 그 작은 무덤을 발굴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천마총이었습니다.
	천마총 무덤의 형식	먼저 천마총의 무덤 형식을 볼까요? 4C 후반에서 6C 초반 사이의 마립간시대 신라의 전형적인 무덤형식인 돌무지덧널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시신을 넣은 관과 부장품을 평지 위에 모래와 자갈로 만든 토대위에 놓습니다. 아울러 시신의 머리맡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귀금속 등을 놓고 다시 나무 널로 덧대어 놓습니다. 이것을 목곽, 우리말로 덧널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굵은 돌을 겹겹이 쌓고 빗물이 새지 않도록 점토를 얇게 바르고 흙으로 봉분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돌무지덧널무덤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돌방무덤형식이 많은데요, 돌방무덤이란 돌로 벽을 쌓아 방을 낸 무덤이랍니다. 따라서 방으로 가는 입구나 통로가 있게 마련이고, 이것만 찾으면 껴묻거리와 같은 유물을 쉽게 꺼낼 수 있어 도굴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의 무덤은 많이 도굴되어 유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은 도굴할 수가 없어 도굴꾼들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대릉원	**천마총 무덤의 형식**	천마총은 대능원의 고분 중 유일하게 공개하고 있는 고분입니다. 부장품 가운데 자작나무 껍질에 하늘을 나는 말이 그려져 있었기에 천마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천마총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만든 고분으로 추정되며, 금관, 음모자, 새날개 모양 관식, 금허리띠, 금동으로 된 신발 등이 피장자(묻힌 사람)가 착용한 그대로 출토되었습니다. 천마도는 신라 무덤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신라인들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마총금관은 국보 제188호로 전형적인 신라금관입니다. 신라금관은 머리위에 두르는 넓은 관테에 4개의 출(出)자 모양세움 장식과 뒷면에는 사슴뿔 모양이 2줄로 있는 형태입니다. 원형 금판과 굽은 옥을 달아 장식하였고 금실을 꼬아 늘어뜨리고 금판장식을 촘촘히 연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테 아래로 나뭇잎 모양의 늘어진 드리개 2가닥을 달아서 장식하였습니다.
첨성대	**지혜로운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27대왕입니다. 여성으로 처음 왕위에 올랐기에 신라에서는 반발이 컸고, 멀리 당나라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의 신분으로 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라에서 여자가 왕으로 추대되었을까요? 당시 신라는 성골출신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성골이란 진골 가운데 특별히 진평왕계 혈통에게만 붙인 이름으로 진편왕의 혈통이 석가모니의 혈통과 일치한다는 이념에서 나온것입니다. 진평왕의 이름을 백정, 어머니 이름은 마야부인인데 이는 석가모니 부처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과 일치된 것입니다. 진평왕 때는 신라의 왕실과 석가의 가문이 일치한다는 의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라를 이끌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선덕왕은 곧 석가모니 부처에 해당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었지만 여자의 몸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답니다.
	첨성대가 만들어진 이유	여러분 첨성대는 왜 만들었을까요? 선덕여왕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여 미리 국가의 장래를 점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첨성대를 지었답니다. 또한 신라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대부분 농사였기 때문에 천문을 관측하는 것은 신라 백성들에게 아주 유익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왕은 첨성대를 지어 풍년을 기원하였답니다.
	첨성대에 숨겨진 과학적 신비	첨성대가 선덕여왕 재위 당시 만들어 1300여 년간 그 위용을 지켜 왔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으며 처음 만들 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천문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첨성대	첨성대에 숨겨진 과학적 신비	첨성대는 기단부, 원주부, 정자부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선조들의 우주관인 천원지방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둥근 원통형의 원주부는 모두 27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입구로 알려진 남쪽창이 중앙 3단에 걸쳐 있으며 나머지 24단이 1년의 24절기를 아래위 12단은 1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전체 돌의 개수가 362개로 음력의 날 수와 일치하는 등 천문관측과 관련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있어도 별이 관측될까?	첨성대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천문대라고 하면 보통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첨성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평지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어떤 이유에서 별들이 잘 보이는 높은 곳이 아닌 평지에 세워 두었을까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대기오염도 없고 밝은 전광판의 불빛이 없기 때문에 평지라도 별을 관측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금이 사는 궁궐 근처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별을 관측했을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 바로 별을 어떻게 관측했을까? 인데요. 지상에서 남쪽 창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아래부분에서 12단까지 돌과 자갈로 채워져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첨성대 안에서는 19, 20단에 놓인 정자석에 다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25, 26단의 정자석까지 또 사다리로 올라가면 27단인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맨 위쪽에는 4~5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앉아 별을 관측했는데 별을 관측하던 기구를 망통이라 하며 관측하는 사람을 일관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설화를 들으러 계림으로 이동하시죠.
계림	김알지의 탄생설화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을 부르는 이름이 몇 개 있어요, 시림이라고도 하고 계림이라고도 해요. 건국 이전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숲이 여러곳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던 아름다운 고목나무들이 울창 한 이곳을 시림이라 불렀습니다. 시림은 여러 숲 중에서도 처음 시작된 숲 또는 근본이 되는 숲이라는 뜻이죠. 탈해왕 4년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금상자에서 탄생 한 이후부터 닭계(鷄)자를 써서 계림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후 알지의 7대 후손이 왕에 올랐는데 그가 신라의 첫째 김씨 왕인 미추왕입니다. 이후 내물왕 때부터 김알지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계림은 신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김알지 탄생 비가 있고 내물왕의 능으로 전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월성	신라의 궁궐터	월성의 이름은 그 모습이 반달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신월성 또는 월성이라고 불렀으며, 문헌과 여기서 출토된 기와장의 글씨를 통하여 재성이라고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고려후기에는 반월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지금까지 반월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반달모양처럼 보이나요? 반월성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반달모양으로 보인답니다.
	석탈해의 지혜	석탈해왕은 왕이 되기 전에 토함산에 올라 넓고 넓은 서라벌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예쁘게 반달같이 생긴 모양의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곳에 집을 짓고 살면 오래도록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석탈해는 산을 내려와 그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이미 호공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호공은 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탈해는 머리를 썼죠. 밤사이 몰래 집주변에 대장장이들이 사용하는 숯과 숫돌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호공을 찾아가서 그곳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둘은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석탈해에게 어떻게 그곳이 할아버지가 살던 곳인지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우리집은 대대로 대장장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웃에 가 계시는 동안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땅을 파서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과연 석탈해의 말대로 대장장이가 쓰는 숯과 숫돌이 나왔습니다. 한명은 증거가 있고 한명은 증거가 없으면 누구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나요? 이렇게 해서 석탈해는 원하던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월성은 어떤 모습?	월성은 왕들이 생활하던 왕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석탈해왕이 살 때까지 월성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월성은 5대 파사왕때 궁궐을 지어 정궁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성이라고 하면 유럽이나 일본의 반듯 반듯한 건축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월성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흙과 돌을 섞어서 쌓은 토성입니다. 성곽만 쌓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해자를 둘러 더욱 철저하게 방어하였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것은 성곽 주위에 웅덩이를 만들고 물을 가두어 적들이 가까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쪽으로 흐르는 자연물길인 남천은 월성을 보호하는 천연의 해자입니다. 동,서,북쪽은 인공적으로 웅덩이를 파서 해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북쪽에는 두개의 연못이 남아 있었는데 해자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석빙고	석빙고의 이용	월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신라시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로 사용했던 석빙고가 있습니다. 신라의 옛 궁궐이었던 월성 안에 있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석빙고는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신라시대 사람들이 여름에 얼음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증왕 때의 기록을 보면 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냉장고의 역할을 하는 석빙고와 비슷한 창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냉장고가 없었으니 얼음을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한다면 오랫동안 음식을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청에서 얼음을 쓰기 위해서 석빙고를 곳곳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것이 월성에 있는 석빙고입니다.
	석빙고의 또 다른 이용	조선시대에 고을마다 얼음을 저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약재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여름철에 열병이 돌아 몸이 불덩이 같이 열이 날 때 그 열을 식히기 위한 얼음찜질용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의 부패를 최소화하는 물품으로 얼음을 썼는데 집안의 지체나 따라 계급의 고하에 따라 분배량을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석빙고의 과학적 원리	석빙고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석빙고가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장치들 덕분입니다. 첫째 환풍구입니다. 얼음이 물로 변하지 않고 바로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하는데, 이 수증기가 벽에 닿으면 물방울이 되어버립니다. 수증기가 물이 되면 열을 내 놓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수증기를 바깥으로 빼 주는 구멍이 바로 환풍구입니다. 둘째 흙과 잔디입니다. 흙과 잔디가 햇빛에 돌이 달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석빙고 안의 온도가 늘 일정하도록 해 줍니다. 또한 빗물에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내부의 공기 주머니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는 날개에 겨울바람이 부딪히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석빙고 천장은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둥글게 쌓아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마련된 공기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다가 여름에도 석빙고 안을 시원하게 해 줍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석빙고	**석빙고의 과학적 원리**	마지막은 바로 석빙고 내부의 기울어진 바닥입니다. 얼음이 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은 얼음을 더 빨리 녹게 만들므로 빨리 밖으로 빼 주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바닥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분황사	**분황사**	분황사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위한 절입니다. 분황이란 부드럽고 향기로운 황제란 뜻을 담고 있는데 황룡사가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절이었다면 분황사는 왕실의 안녕을 비는 절이었습니다. 현재 사찰내에는 모전석탑, 보광전, 우물, 비석받침대가 남아 있어요. 분황사에서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바로 모전석탑입니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모전석탑은 신라시대 세워진 탑 중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모전석탑이란 돌을 벽돌처럼 깎아 쌓은 탑입니다. 원래 벽돌은 흙을 구워 만드는데 이것으로 탑을 만들면 전탑이라고 합니다. 모전석탑이란 벽돌이 아니라 돌을 벽돌처럼 깎아 쌓은 것을 말합니다. 모전석탑을 보시면 자연석으로 된 기단 위에 네 마리의 돌사자를 배치하였고 무척 힘이 센 모습을 한 인왕상이 탑을 지키고 있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부서진 것을 일제 강점기 때 수리했는데 탑 안에서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병모양의 그릇 실패와 바늘 침통, 가위 등이 발굴되었답니다. 원래 신라 분황사 뒤담 바깥 우물에서 목이 잘려진 석불상 등 모두 스무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하면서 일부러 파손하여 우물 속에 넣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의 우물로서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분황사 우물은 나라를 지키는 용이 살아있던 곳이라 하여 호국변어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물은 있지만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친필이 새겨져 있는 비석 받침대인데요, 아쉽게도 비석은 남아 있지 않아요. 이밖에도 원효가 이곳에서 <<화엄경소>>을 썼다고하고, 절의 왼쪽 건물에 있었던 솔거가 그린 천수대비벽화는 매우 영험이 있어서 눈먼 여자 아이가 노래를 지어 빌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황룡사지	**황룡사지**	자, 여기는 신라의 자랑이 위대한 유산이었던 황룡사라는 절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절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지만 바로 선덕여왕께서 세운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던 곳이기에 더욱 유명합니다. 이곳의 면적이 2만 4천여 평으로 보통 야구장의 다섯 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흥왕 때 늪지를 메워 궁궐을 지으려고 했던 곳인데 갑자기 황룡이 나타나자 신기하게 여긴 진흥왕은 계획을 바꾸어 사찰을 짓기로 하였답니다. 황룡사9층목탑은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자장법사가 신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선덕여왕에게 요청해 만들었습니다. 645년에 완공되었지만 220년이 지나 기울어진 것을 경문왕 때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1238년 고려 시대에 몽고의 침입으로 황룡사가 불탈 때 소실되었습니다. 탑 각 층에는 신라가 당시 주변 아홉 나라를 물리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끊임없는 주변 국가들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탑을 세우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부처님께 기도했으며 모든 신라인의 염원을 황룡사 탑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탑을 완공한 후 신라의 왕들은 9층까지 올라가 경주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보며 강대한 신라를 꿈꾸었겠지요. 황룡사 9층 목탑에 얽힌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황룡사 9층목탑을 세울 것을 제안 받은 선덕여왕은 신라의 건축기술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백제의 아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인 아비지는 열심히 신라에서 탑을 만들고 있었는데 탑의 중심기둥을 세우기 전날 밤 백제가 멸망하는 꿈을 꾸었어요. 아비지는 불길한 마음에 이 탑을 완성하면 조국 백제에 역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탑을 만들 수 없어서 백제로 돌아가려 했지만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늙은 스님과 거인이 나타나 탑의 중심 기둥을 세우고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놀란 아비지는 탑을 세우는 일이 부처님과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3년 만에 탑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결국 15년 뒤 백제는 신라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안압지	안압지의 유래	안압지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후 그 기념으로 새운 별궁입니다. 동궁의 중심 건물은 임해전이며 이 건물 주변에 연못을 파고 연회를 베풀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연못과 정원을 꾸몄습니다. 안압지의 원래이름은 월지, 즉 달 못입니다. 신라가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 준 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궁궐의 주인은 없어지고 집은 허물어져서 점점 폐허가 되었습니다. 못 속에는 수초들만 무성히 자라는데 날아가던 기러기와 오리들이 수초 사이로 먹이를 찾자 이 모습을 보고 오리와 기러기가 먹이를 찾는 못이라고 하여 기러기안(雁), 오리압(鴨), 못지(池) 자를 써서 안압지라 부르기 시작 하였답니다.
	안압지의 구조	안압지는 신라인들이 바다를 꿈꾸며 만들어 놓은 인공 연못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한눈에 다 보지 못하듯이 안압지 어디에서도 한눈에 연못을 다 볼 수 없도록 설계했으며 바다의 섬과 해안선 절벽을 연상하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라 안에 못을 파고 가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기이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는 매우 아름다운 연못과 궁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안압지와 주변의 건축지들은 당시 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동궁인 임해전의 확실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건물터의 초석이 발굴되었습니다. 연못 안에는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섬이 세 곳 있으며 안압지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수부는 물을 끌어들이는 장치를 한 곳으로 정원 못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을 거북이를 음각한 것 같은 아래위 4개의 수조가 필터역할을 하게 하고, 물이 썩지 않게끔 자연석 계단으로 작은 폭포를 만들어 흘려보내 연못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위 수조에는 용머리 토수구를 설치하여 용의 입으로 물을 토해서 아래 수조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용머리는 없어지고 지금은 용머리를 끼운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입수부를 통해 들어온 물은 연못 안 세 곳의 인공 섬에 부딪혀 곳곳을 굽이 돌아 3단으로 된 나무 마개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출수구로 흘러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3개 건물을 복원시켰으며 출토된 유물들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안압지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안압지	**선조들의 놀이**	우리나라 고대 유물 중에는 목제품이 많지 않죠. 그런데 1975년에 안압지를 발굴하던 중 연못 바닥의 갯벌 속에서 주령구라는 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14면 주사위가 발견되어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참나무로 만들어진 이 주사위는 정사각형 모양의 면이 6개, 육각형 모양의 면이 8개 있었고 주사위의 각 면마다 네 글자정도씩 새겨져 있습니다. 잔치 때 흥을 돋우는 왕실 놀이기구의 일종으로 이것을 굴려서 위로 나타나는 면에 쓰인 글의 내용에 따라 벌칙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님도 술 세잔 한 번에 마시기가 나오면 폭탄주를 마셔야 했겠죠? 내용 - 술 세잔 한 번에 마시지, 스스로 노래 부르고 스스로 마시기, 소리 없이 춤추기,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아무리 놀려도 화내지 않기, 우리 같이 못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신라의 달밤은 물속에 거꾸로 비친 정자들의 모습이 더해서 더욱더 환상적이랍니다.
서출지	**서출지**	서출지는 남산 기슭에 이쓴 오래된 연못으로 연못 이름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불교가 국교로는 정해지지 않았던 신라 소지왕 시절, 왕은 신하들과 더불어 천천정으로 나들이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까마귀와 쥐가 임금님의 행열앞에 와서 울어대는데 특히 쥐 한 마리가 왕에게 사람말로 “ 저 까마귀를 따라 가보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이하게 여긴 소지왕은 신하에게 시켜 그 까마귀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신하는 까마귀를 따라가다 피촌에 있는 못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는 두 마리의 돼지가 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돼지 싸움에 정신이 팔린 신하는 그만 까마귀의 행방을 놓치고 말았고 당황하여 못가를 돌며 까마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때 이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신하에게 봉투를 전해주며 왕에게 전해주라 하였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그 봉투를 전해주니 겉봉에는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사람이 죽는다” 라고 씌여 있었습니다. 소지왕은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사람이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열어보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때 다른 신하가 “한사람이라 함은 임금님을 말하는 것이고 두 사람은 평민을 말하는 것이니 열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 권하였습니다. 소지왕은 신하들의 권유에 따라 봉투를 열어보니 봉투에는 『거문고갑(謝金匣)을 활로 쏘시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서출지	서출지	왕은 급히 대궐로 돌아와 왕비의 침실에 있던 거문고 상자를 겨누어 화살을 날렸고 화살이 거문고 상자에 박히니 그곳에서 붉은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왕비와 통정하던 중이 왕이 오면 해치려고 거문고 상자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해서 죽음을 모면하고 왕비는 사형을 당했으니 때는 정월 보름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연못은 편지가 나와 왕을 구했다하여 서출지라 불리게 되었고 이 곳 서출지로 왕을 안내한 까마귀를 치하하기 위하여 이날을 오기일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정월보름 오기일(烏忌日)에 까마귀와 까치에게 오곡밥을 지어 먹이는 풍습이 생겨난 기원입니다. 서출지에 가면 작은 정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요당이라는 정자로 조선 헌종 때 임적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입니다. 현재는 임씨 문중의 소유로 개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7~8월에 연못을 장식하는 연꽃들과 주위의 배롱나무가 더욱 더 이곳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양동마을	양동마을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대문화와 불교문화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융성했던 곳인데요, 이곳 양동마을은 그 규모나 질적인면 그리고 보존상태가 전국 어느 민속마을보다 우수하여 200년이상 된 160여 채의 조선시대의 한옥들이 다른 곳보다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세운 한옥이 전국에 10채가 있는데 그 중 4채가 이곳 양동마을에 있구요, 양동 마을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집안이 사오백년(동안)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유서깊은 마을이예요.
	지리적 위치	마을을 감싸안은 설창산에서 물(勿)자형으로 갈라져 나온 언덕과 골짜기마다 예스런 기와집과 아담한 초가집, 정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양동마을은 배산임수의 지세에 내부가 구릉들로 둘러싸여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보호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갖고 있답니다. 양동마을은 외부에서는 일부만 보여서 매우 폐쇄적입니다. 이러한 시각적 차단은 조선시대 동족 마을이 외부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아 전통마을의 기본적 입지구조로 볼 수 있어요.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있어서 겨울철의 찬 북서풍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앞의 강을 거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시원하답니다. 또한 이 마을은 배가 떠나는 형세이라 해서 부락 대부분의 기와집을 맞배지붕으로 하고, 우물을 파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해서 네 개의 우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양동마을	양동마을의 형성	현재의 마을을 이룬 손소 공이 양동으로 장가와서 처가의 재산을 물려받아 살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손소의 맏아들은 장가들어서 처가 동네로 가고 둘째 아들인 손중돈이 상속자가 되어 마을을 이끌었답니다. 이후 손소 공의 외동딸에게 장가온 사람이 회재 이언적입니다. 이후 양동마을은 월성손씨와 여강이씨, 두 성씨가 어울려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두 집안은 산중턱이나 언덕 위 높은 곳에, 소작인과 하인들은 산 밑자락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어요. 손씨가 터 좋은 곳에 정자를 지으면 이씨도 그에 버금가는 곳에 정자를 세우고, 한 쪽에서 서당을 지으면 다른 쪽에서도 서당을, 이렇게 두 집안이 서로 뒤질세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경쟁하듯 솜씨 좋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이런 경쟁이 지금의 양동마을을 이룬 힘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학문과 교육의 전통	양동마을은 학문과 교육의 전통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조선중기부터 중앙정계를 진출한 유림 중에서 세조55년(1459)에 이 마을을 세운 손소 공은 문과에 급제하고 중앙무대에 진출하여 이시애의 난을 진압할 때 공을 세워 공신이 되었고 이어서 그의 둘째 아들 손중돈은 성종20년(1489)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로 40년 동안 요직을 두루 거치고 청백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대유학자이자 경세가인 이언적은 성리학의 이기철학(理氣哲學)의 체계를 세우고 조선조 성리학의 기초를 다졌답니다. 손씨, 이씨를 합쳐서 과거급제자가 116명이였을 정도로 많은 인물이 배출됨으로 양동마을은 이름난 양반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곳	양동마을의 서쪽 10여리에 펼쳐진 광활한 안강 평야가 마을을 지탱하는 경제력의 바탕이 되었고, 1930년대까지 이 마을에 1000석꾼 이상의 부자가 다섯 집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산강과 안락천의 수심이 깊고 물이 많아 포항 쪽의 고깃배들이 늘 드나들어 해산물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한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께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질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옥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여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지었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여름에는 대청마루로, 추운 겨울에는 온돌로 지혜롭게 생활했어요. 한옥의 방문이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것은 추운 겨울철 문을 열면 따뜻한 방안의 공기가 일시에 빠져나가므로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문에서 천정까지의 공간을 둔 것은 항상 방안 윗부분에는 따뜻한 공기를 가둬 두기 위한 것이랍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양동마을	한옥에 담긴 조상의 지혜	한옥의 부엌을 한번 보실까요? 한옥의 부엌은 사방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음식이 수분이 많은 밥과 탕이 많은데 기둥과 석가래가 썩지 않고 흙벽도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습기를 빨리 배출하여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는 집의 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칸수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100칸 이상은 절이나 궁궐이였구요, 60칸은 대군의 집, 50칸은 왕자나 공주, 군주의 집이였구요, 40칸은 옹주와 종친, 2품이상, 30칸은 3품이하, 10칸이하는 일반서민이 집을 지을 수 있게 건축물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향단(香壇)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려한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건물이 향단(마을입구 이씨들의 대표집, 보물 제412호)입니다. 회재 이언적(1491~1553) 선생님이 1543년 경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할 당시 중종 임금이 그의 모친의 병환을 돌볼 수 있게 배려하여 지어준 집이예요. 당시 99칸이었으나 허물어져 1976년 보수하면서 56칸으로 줄였으며, 건축적인 미가 뛰어나 건축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해요. 회재 선생이 전임하면서 동생 이언괄 선생에게 물려주어 그의 손자인 이언관의 호를 따서 향단이라 이름 짓고,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되었답니다. 밖으로는 개방적을 보이지만 사랑채와 행랑채 지붕에 막혀 안채의 공간은 단절되어 있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관가정 (觀稼亭)	조선시대 우재 손중돈 선생이 손소 공으로부터 분가하여 살던 집이 관가정(마을입구 손씨들의 대표집, 보물 제442호)이예요. 격식을 갖춘 간결하게 지어진 우수한 주택이며, 사랑채에서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형산강과 경주를 품에 안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관가정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듯이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첨당 (無忝堂)	회재 이언적 선생의 부친인 이번공이 살던 집으로 1460년 경에 지은 여강 이씨의 종가집인데 동쪽에는 사랑채와 안채 서쪽에는 별당이 바로 무첨당(이씨종가집, 보물 제411호)입니다. 무첨당이란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첨당은 이언적 선생의 다섯 손자 중 맏손자인 이의윤 공의 호이며, 오른쪽 벽에 대원군이 집권 전에 이곳을 방문했었다는 죽필글씨인 좌해금서(左海琴書)라는 편액이 걸려있는데 “영남(左海)의 풍류(琴)와 학문(書)”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양동마을	서백당 (書百堂)	규모와 격식을 갖춘 가옥으로 이 마을의 입향조라 불리는 양민공(襄敏公) 손소 공이 성종15년(1454)에 지은 월성손씨의 종가집이 이곳 서백당(손씨 종가지부, 중요민속자료 제23호)이랍니다. 서백당은 하루에 참을 인(忍)자를 백번 쓴다는 뜻이며 근래에 와서 굳어진 당호라고 합니다. 서백당 또는 송첨(松簷)이라 부르며 집터를 잡아준 풍수가 설창산(雪蒼山)의 혈맥이 응집된 이 터에서 세 명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리라 예언했다 하며 손소 공의 둘째아들로서 명신이자 청백리인 손중돈 선생과 그의 생질이 되는 이언적 선생의 어머니가 친정에 와서 해산함으로써 이곳에서 태어났고 한분은 아직 미 탄생이라고 합니다.
기림사	기림사의 유물	경북 경주 양북면 호암리 함월산(含月山) 기슭에 있는 기림사는 불국사에 딸린 절입니다. 643년(선덕여왕12) 천축국(天竺國)의 승려 광유(光有)가 창건하여 임정사(林井寺)라 부르던 것을, 뒤에 원효가 다시 지어 머물면서 기림사(祇林寺)라 개칭하였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최초의 절을 지은 기원정사의 숲을 기림(祇林)이라고 하니 함월산의 기림사는 그러한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 절 중에서 대적광전은 절의 본당으로 내부에는 비로자나삼존불을 모셨는데, 불상의 내부에서 경전과 조선시대에 만든 불경, 부처님 진신사리 4과 등이 발견되었답니다. 또 약사전에는 인간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약사삼존상과 사천왕상, 지옥의 모습을 그린 탱화(불교 그림)가 있습니다. 이 탱화는 기림사 창건에 관한 설화를 보여주는 특이한 불교그림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로는 보물 제415호인 건칠보살좌상(乾漆菩薩坐像), 삼층석탑과 목탑지 석조문적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석조치미는 불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신라 때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해지는 책 중에는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 營主題名記> 동도역세제자기<東都歷世諸子記> 부호장선생안<府戶長先生案>등(역사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상도와 경주의 행정에 관한 것과 행정관에 대한 인적사항, 신라이후의 지방제도의 변혁 등을 기록한 중요한 문헌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 절에는 조선 역대 왕들의 글씨도 보관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비석모양의 나무에 이 절의 역사를 기록한 나무로 만든 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절에는 원래 다섯가지 물맛이 나는 오미정수(五井水)가 유명하였다고 전하는데, 그 중 장군수(將軍水)는 마시면 힘이 용솟음친다하여 인근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역적모의를 하다가 발각된 뒤 나라에서 샘을 메워 버렸다고 합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기림사	기림사의 유물	나한전 앞쪽 탑 자리에도 샘이 있었다고 하나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또 하나는 절 입구에 있었으나 최근 도로 확장 때 매몰되었으며, 이 절에는 천년에 한번 핀다는 '우담바라화'라는 한약초가 있었다고 전하며, 북쪽가지에만 꽃이 핀다는 지북화란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림사 건칠보살 좌상	건칠보살좌상은 종이로 만든 보살상의 몸체에 옻칠을 하여 만든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건칠불은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높이 0.9m의 보살상은 나무로 만든 받침대에 글이 남아있어 조선 연산군 7년(1501)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따로 관을 만들어 얹고, 둥글고 통통한 얼굴, 배와 가슴의 띠와 장신구는 그 때의 특색을 잘 보여 줍니다.
탑곡마애 조상군	탑곡마애 조상군	일제 때부터 옥룡암 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암자는 불교유적과 자연경관을 한 자리에 모은 곳에 있는데 경주 사람에게는 불국사만큼이나 친숙한 이름입니다. 절 남쪽으로 장엄한 탑곡마애조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불상이 새겨진 바위를 탑곡마애조상군이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사방불과 사면불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께요. 사방불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사면에 조성된 부처님이면 사방불이라 하고 서로 각기 다른 시기 또는 다른 장소에 있던 것을 한곳으로 모은 부처님은 사면불이라 한다. 이 부처바위는 사방 바위 면에 불교세계의 각가지 형상을 새긴 사방불인데요, 탑, 불상, 승려상이 있고, 사자상, 여러기의 비천상, 공양하는 스님상, 보리수 나무아래 생각에 잠긴 스님상 등 무려 30여 점에 달하는 여러 형상이 한 바위에 새겨져 있으니 흔히 있는 사방불과도 다른 점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이 가시는 곳 마다 사방 온 누리에 화려하고 장엄한 부처님 세계가 열린다고 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화려한 부처님 세계를 나타 낸 곳이죠. 그 뿐 아니라 이 부처바위에 새겨진 탑의 모양을 통해서 신라 때 있었으나 지금은 알길 없는 신라 목조탑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면** 가운데에 석가여래좌상이 있고 그 좌우에 크고 화려한 탑을 조각 했고 그 앞에 각각 한 마리의 사자가 부처님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처님 머리 위에는 천개가 있고 그 위에는 여럿의 비천상(날아가는 천사)이 있으니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한 부처님세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두 개의 탑은 목탑의 형상인 것 같고 기단부(탑의 기초), 탑신부(탑의 몸통), 상륜부(탑의 꼭데대기)를 완전히 갖추었고 상륜부(꼭대기 부분은)는 노반, 용차, 보주에 이르는 전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 신라 목탑의 모양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탑곡마애조상군	**탑곡마애조상군**	**서면** 서쪽 면은 면이 좁은 탓에 한 분의 불상(부처님과)과 불상 주위의 장식물과 그 위를 나는 한 분의 비천상(하늘을 날아 내려오는)이 있이요. 부처님은 약병을 든 약사여래상입니다. **동면** 세 개로 갈라진 바위가 세 개의 면은 가장 넓은 아래쪽에 삼존불(세 분의 부처님)을 새겼습니다. 연꽃 방석에 앉은 부처님을 새기고, 그 앞에는 향로를 받든 수도승(기도를 드리는 스님)이 있습니다. 부처님 머리위에는 극락세계를 축복이라도 하듯 여러 명의 천사들이 천의자락을 나부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마모가 되었지만 비가 오고 난 후 바위가 촉촉이 젖어 있을 때 보면 잘 보인답니다. 가운데는 보리수 아래 앉아 성불(기도드리는)하는 아미타여래를 새긴 듯하며 위쪽의 셋째 면에는 또 한분의 여래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바위 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고 있어 가운데 부처님이 서방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여래상으로 본답니다. **남면** 이곳은 언덕에 접하며, 동, 서로 두 쪽이 나뉘에 있습니다. 그 중 동쪽 면에는 삼존불좌상(세분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상)이 있고 서쪽 면에는 얇은 굴을 파고 그 안에 한 여래상을 조각했습니다. 한 분의 여래상을 입체로 조각하여 바위면의 단순함을 커버함으로써 조화롭게 보이도록 한 우리 조상의 예술적인 면을 엿보게 합니다. 이곳 부처바위에 있는 조각들은 어느 곳의 사방불에서도 볼 수 없는 성불 과정과 사방정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부처님 세계를 모두 담은 특이한 예로 신라불교의 특징적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층 석탑, 석등자리, 금강역사가 문을 받치는 기둥 모양의 석돌기둥도 있어 그 옛날 신라인들이 이 자리에 밝혔던 법등이 얼마나 성했는가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답니다. 또한 이곳에 탑이 있다고 하여 옛날부터 탑곡이라 부른답니다.